

# 설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임실, 훈훈한 주민 복지행정 호평... 취약계층에 단비

임실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군은 설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취약계층 1,120가구에 총예산 1억5,300만원을 투입해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취약계층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상위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인 가구는 15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3인 가구 이상일 경우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이번 상품권은 12개 읍·면에 상품권을 교부하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설·추석 명절 어려운 지역민 1,956가구 2,222명에게 총 3억700여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민선 7기인 2019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 시행한 이 정책은 관내 취약계층에 단비 역할을 해내며, 호평을 받고 있다. 임실읍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물가가 무섭게 올라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걱정도 큰데 임실사랑상품권을 받게 돼 큰 보탬이 된다"며 "이번

설에도 평소보다 풍족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은 설과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이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심 민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실한 주민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하나 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지역활력 불어넣는다

## 순창, 상반기 개관 청년문화센터 중심으로 상담·정보제공 등

순창군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2024년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활력의 감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개관할 청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성

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 등 청년 커뮤니티를 구축해 갈 계획이며, 더불어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분야 등 14개의 군 자체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창업

지원,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 직업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청년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근로활동 고취를 위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확대 추진하여 청년들의 자립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경우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서, 2년간 매달 10만원씩 지정된 통장에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240만원을 군 지원금으로 매달 20만원씩 480만원을 더해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 시행 결과 지역 청년 332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청년근로자들의 관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 및 소 재지에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가족 정착을 유도하여 폐교위기의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 남원시 산동면, 취약계층 돌봄 강화

남원시 산동면 이현재 면장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을 더욱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일 1가구 방문 소통 행정과 병행, 1인 가구, 저소득 취약계

층, 중증 장애인 가구, 고령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부재 시에는 인근 이웃 주민을 통한 간접확인까지 더불어 적극적인 돌봄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이웃돕기 물품을

연계·전달하는 물질적 지원도 빠짐없이 추진해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동면에서는 올해 1일 1가구 방문 대상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서비스의 향상으로 내실 있는 방문을 추구하고, 주민이 중심으로 감동하는 따뜻한 살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202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을 수상했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 남원, 2024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 '피어나다 남원' 새롭게 변화하는 이미지 잘 표현

남원시 관계자는 시가 서울 가든호텔에서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2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수상한 남원시 도시브랜드 '피어나다 남원'이 소비자 직접 평가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도시브랜드 부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남원시 도시브랜드 '피어나다 남원'은 남원 출신 김병중 화백의 화향산수를 모티브로 남원이 가진 문화적·예술적·산업적 가능성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피어나는 이미지를 잘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 이·통장, 청소년 등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개발한 노력도 인정 받았으며, 남원시는 도시브랜드 '피어나다 남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경관·공공디자인·도시녹화 등을 통합한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일관성 있는 계획도시로 만들어 도시경관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남원시 도시브랜드가 명품 브랜드로의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다며, 오는 제94회 춘향제와 2024 남원세계드론제전의 성공적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소방, 2023 통계분석 화재 출동건수 다소 줄어

남원소방서(서장 박현)가 2023년 한해 펼친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1만2,878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화재 출동건수는 361건으로 전년(363건) 대비 다소 줄었지만 피해 건수는 168건으로 전년(154건)보다 9.1% 상승하였으며, 인명피해는 5명(부상)으로 전년 대비 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8건(52.4%)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43건(25.0%), 기계적 요인 10건(5.9%) 순이었고, 장소별로는 주거 외 건축물이 46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 33건(19.6%) 차량 16건(9.5%) 순이며, 구조출동은 1,444건으로 전년(1,665건)보다 13.3% 감소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축협,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돼

남원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축협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23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도단체로 지정된 남원축협은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응호적인 태도 확립과 치매예방 활동은 물론 치매극복 환경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치매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배려하기,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교육을 통해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 치매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확대

### 순창, 자부담 2만원 군비 지원 등

순창군이 오는 2월 29일까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75세 미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읍중(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순창군의 경우 기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부담금인 2만원을 군비로 확대 지원하여 자부담 없이 1인당 15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신청자격은 농촌에 거주하는 20세~75세(1950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전업농업인 및 겸업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또는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나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2022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여성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추가지원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활동 및 복지향상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